

아마존, 벌목과 전쟁 선포

원주민들 “모든 수단 동원 땅 침범하는 이들에 대해” 침입자들 길·다리 만들어



8월 31일(현지시간) 크리메이 마을의 추장 카디제레 카야포(왼쪽)가 브라질 파라주 알타미라에서 총을 든 아들과 배를 타고 불법 벌목업자들이 만든다 중단한 교량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카야포 추장 등은 원주민 영토에 대한 침입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순찰대를 운영하며 감시 활동을 펴고 있다. 뉴스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카디제레 카야포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아마존 산불과 관련해서 앞으로 부족의 땅을 침범하는 투기꾼들과 벌목꾼들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파라 주에 자리잡고 있는 카야포족의 추장인 그는 일부 동족들과 함께 최근 며칠동안 부족의 영지 안의 무성하게 숲이 우거진 우림지대를 순찰하면서 침입자의 흔적을 찾는 데에 주력해왔다. 이들이 자체 순찰에 나선 것은 최근 아마존의 광대한 지역에 걸쳐 산불이 휩쓸고 있어 대기 중에 탄산가스 방출은 물론, 그 동안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해온 아마존 우림의 훼손에 대해 국제적인 비판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이들 카야포족 순찰대와 동행한 기자로부터 아마존 우림 안에 임도(林道)로 새로 생긴 길들과 일부는 세우다 중지한 교량 등 불법 벌목업자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카디제레 카야포는 크리메이 마을의 추장이며 이곳 마을 사람들은 원주민 영토에 대한 침입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계속해서 순찰대를 운영하며 감시 작전을 벌여왔다.

전통적인 머리 장식과 카야포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새겨진 목걸이를 착용한 그는 "이 마을은 내가 불법 벌목꾼들과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서 세운 마을이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최근

아마존 우림지대에 살고 있는 원주민 부족들에게 할당해 준 땅이 너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브라질 국토의 14%가 원주민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원주민의 인구에 비해서 너무 넓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브라질의 아마존 우림보호 정책이 경제발전은 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발의사를 밝혀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그는 유럽국가들이 지나치게 우려를 표명해서 브라질의 환경을 오히려 망치고 있다며 그들은 자기네 지역의 삼림 복원에나 힘쓰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브라질의 아마존 우림지대는 올 8월 중

에만 3만901건의 화재가 발생해 2010년 이래 최대 발생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위성감시를 맡고 있는 브라질의 우주연구소가 9월 1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올 8월 산불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6%나 늘어났다. 가장 많았던 것은 2010년 8월의 4만5천18건이었다. 브라질에서는 건조기인 8월에서 10월까지가 아마존에서 가장 화재 발생률이 높은 시기이다.

남미 여러 나라를 관통하는 아마존 강의 우림 지대는 약 60%가 브라질 소유지로 돼있다.

뉴스

트럼프 “9월 무역협상 예정대로 진행”

미국과 중국이 1일 추가관세를 상호 부과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월로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CNBC,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 9월 (무역협상) 회의(계획)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를 뜯어먹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다른 자리에서 “우리는 중국에 시종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미국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공급체인을 되돌려

라. 중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살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9월로 예정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여전히 유효하지는 않는 질문에 “오늘 양국 간 다른 수준의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다”며 “우리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협의를 원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그들이 일자리 수백만개와 기업 수천개를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지난 25년간 미국을 뜯어먹었다”며 “나는 오래전부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내가 여기 백악관에 대통령으로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뉴스

“노딜 브렉시트 英 식품가격 폭등할 것”

英 식품업계, 정부 주장 반박 “신선 제품 타격 명백한 사실”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이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영국이 합의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가 발생할 경우에도 영국 내에서 식량부족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영국 소매업계가 1일(현지시간)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식품 판매 업체나 소비자가 모두 신선 식품을 사재기하거나 식량난을 완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앞서 BBC방송의 앤드류 마 쇼에 출연해서 노딜 브렉시트가 닥치더라도 일부 식품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음식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브의 이런 발언은 영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전 “브렉시트에 대비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와중

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크다. 영국 소매업 콘소시엄(BRC)은 즉시 대변인을 통해 반박 성명을 내고 “노딜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신선식품의 공급이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틀린 얘기다. 우리 소매 업계는 지난 36개월 동안 정부와 모든 협의를 솔직하고 투명하게 지속해왔으며, 브렉시트로 인해 생겨난 국경 통과와 수송절차의 지연으로 신선 식품을 구하는 일이 가장 타격을 입을 거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BRC는 특히 10월 말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최악의 사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의 ‘식품 음료 연맹’도 이와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신선 식품과 음료, 특히 과일과 채소는 공급현상과 가격 폭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

‘역대급 허리케인 도리안’ 바하마 강타

최고등급인 5등급으로 강화 이주美 동남부 지역에 영향

최고등급인 5등급으로 강화된 허리케인 도리안이 1일 오후(현지시간) 바하마 북부를 강타해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시속 298km의 강풍을 동반한 도리안은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바하마 아바코 섬의 엘보 케이를 강타한 후 오후 2시 그레이트 아바코 섬의 마시 하버 인근에 두번째로 상륙했다. 이로 인해 현지에서는 주택 및 건물의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겼으며, 자동차 등 기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재앙적 상황’이란 현지 보도도 나오고 있다.

바하마 관광항공부의 조이 지브릴루는 AP통신에 “엄청난다. 재산과 인프라스트럭처가 큰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리안은 현재 최고 시속 354km의 강풍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약 4km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도리안은 이번 주 초반 미 동남부 지역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절(2일) 연휴기간에 미국을 강타하는 허리케인으로는 1935년 이후 84년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허리케인 도리안이 1일(현지시간) 바하마를 강타하면서 그랜드 바하마 섬의 대피소에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뉴스

이다. 도리안이 미국에 상륙할지, 아니면 해안 지역을 스치고 지나갈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기상당국은 밝히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등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이다. 뉴스

옛 동독지역 지방선거서 극우정당 급부상

독일 옛 동독 지역의 2개 주(州)에서 1일(현지시간)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반이민 극우정당이 급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치러진 작센주와 브란덴부르크주 선거가 끝난 뒤 공영방송인 ARD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작센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독교민주당(CDU)은 32%의 투표율로 제1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7.4%포인트 떨어졌다.

극우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작센주에서 27%의 득표율이 전망됐다. 이전 선거보다 득표율이 17.6%포인트나 상승했다.

좌파당은 이전 선거보다 8.3%포인트 떨어진 10.6%에 그쳤다.

반면 녹색당은 이전 선거보다 3.1%포인트 상승한 8.8%, 사회민주당은 4.5%포인트 하락한 7.9%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대연정 소속파인 사회민주당(SPD)이 27.2%를 투표해 제1당을 지키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전 선거보다 4.7%포인트 떨어졌다.

AfD는 22.8%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전 선거보다 10.6%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AfD는 작센주와 브란덴부르크에서 모두 제2당이 됐다. 뉴스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쿨러한가도 삽니다” “좋은 인연 만들겠습니다”

최고가 매입

당일이전/즉시 현금 지급

돈 없이 중고차 구입 가능

할부상담 전액 할부 가능

차량구입 + 이전비 + 보험료 + 여운돈

H. 010-4609-8976



(주)영서모터스
대표 윤민식
전남권 출장 가능
광주광역시상 표창대 수여 2019년

28년 연속 방문자·선호도 1위 광주일자리 사랑방 JOB



광주 300대 기업 채용관 요식 브랜드 전문관

평균 연봉, 매출 등 기업정보 완벽수록 프랜차이즈 정보부터 출퇴근거리 계산까지

보증보험 가입업체 관허 97호 ◆ 20층 장비 보유 ◆

포장이사 전문업체 - 혜성익스프레스 전문 일반이사 보관짐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 저희 업체는 전 직원이 경력자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해 드립니다.

전국어디든 운반 가능 062)522-2424 전남 전지역 061)375-8824

※ 견적은 무료이며 여성장님이 직접 방문 ~ 절대 웃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업체 - 분담서비스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함 / 관허 124호

LG 익스프레스

이사 마무리시 스팀청소 서비스

- 선반 · 가구 · 싱크대 · 냉장고 청소
- 블라인드, 버티컬 탈부착 무료
- 2층~22층 사다리 보유
- 전국 체인점망 구축
- 에어컨 이설, 피아노 운반 전문

전국 어디서나 문의 080-925-1234, ☎ 572-8900

나와 가장 가까운 내손안에 JOB

인터넷 + 모바일 + 신문 동시게재

전문의 300대기업 알바 테마채용관

다양한 업종 채용 정보를 한눈에

세분화된 업무검색 검색서비스를 통해 1:1 채용정보 획득!

사랑방 JOB